

‘전통과 그림의 미학’ ... 전주, 인구 60만 대도시 중 유일 ‘슬로시티’ 인증

지속가능한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다

전주시는 인구 60만 이상 대도시 중 세계최초로 도시전역이 슬로시티로 지정된 도심형 슬로시티다.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전주의 정체성인 자동차보다는 사람, 콘크리트 보다는 생태, 개발보다는 재생 그리고 격조 높은 문화를 지켜온 덕분에 전주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슬로시티 재 인증으로 두 번째 슬로시티 시대를 맞이한 전주시의 높아진 생태 자생력은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간 노력을 따라가 보자.



24일 전북 전주전통문화연구원 풍락헌에서 '제2회 전주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 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전주가 지켜온 전통문화, 슬로시티로 인정받다.

천년의 시간을 대를 이어 고유한 문화와 생활양식을 지켜온 전주다. 오랜 시간에도 바뀌지 않고 독특한 빛깔로 성숙된 문화와 생활양식은 어느새 전주를 이루는 정체성이 되었고, 현대에 이르러 전통이라는 이름의 자식이 됐다. 이렇듯 전통을 오롯이 지켜온 덕분에 전주는 '전통문화도시'로 유명하다.

전주가 지켜온 전통과 그림의 도시 정체성은 2011년 전주한옥마을이 전통과 어울려 살아가는 슬로시티로 인정받는 밑거름이 되었다.

전주시는 700여 채의 한옥이 군락을 이루고 조선왕조시대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재와 문화시설 그리고 한옥마을 곳곳을 수놓은 형형색색 한복은 판소리과 어우러져 세계인들을 매료 시키며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2016년 국제슬로시티는 전주시 전역을 세계최초 도심형 슬로시티로 재인증했다. 인구 60만 이상의 도시 가운데 슬로시티는 전주가 유일하다.

한편 국제슬로시티는 전통과 자연을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1999년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전 유럽의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 시작된 지역 프로젝트 운동으로, 현재 세계 30개국 244개 도시가 국제슬로시티 연맹에 가입돼 있다.

▲전주시 슬로정신 도시전역 확대 노력, 국제위상 높여

전주는 세계최초 도심형 슬로시티라는 타이틀에 만족하지 않고 그림슬로운동의 가치 확산을 위해 안팎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6년 국제슬로시티연맹 국제조정위원회를 아시아 최초로 전주에서 개최했다. 국제슬로시티연맹 국제조정위원회가 슬로시티 본고장인 유럽을 벗어나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렸다. 국제조정위원회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개최되는 슬로시티연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전 세계 슬로운동가들이 전주에 모여 '세계가 묻고 전주가 답하다'를 주제로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다. 제1회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는 국내외 슬로운동가 150여명이 참석한 슬로운동의 정의와 방향, 도시에서의 슬로운동 적용 등을 토의했다. '차 없는 도시'로 명성을 얻은 스페인 톨레도데라 시의 미구엘 안소 페르난데즈 로어스 시장과 '느린 것이 아름답다'의 저자 칼 오너리, 다큐멘터리 제작자 플로리안 오피츠 등이 참석해 슬로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발표했다.

24일부터 25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리는 '제2회 전주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는 슬로니스와 삶의 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대회사와 피에르 올리베티 국제슬로시티 연맹 사무총장의 축사, 후쿠하치 미치오 일본 코노하나 패밀리 국제업무 총괄의 특별 게스트 스피치로 문을 연다. 전주가 두 번째로 준비한 대규모 슬로

2011년 한옥마을, 슬로시티 인정받는 '밑거름'으로
2016년 국제슬로시티가 전역 세계 최초 도심형 재인증
시, 작년 11월 전 열린 포럼·어워드에 이어 올해도 개최
김승수 시장, 민선6기부터 슬로운동에 다각적 노력 기울여

시티 국제행사인 이번 포럼은 '슬로니스와 삶의 질'을 놓고 토론회와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나아가 전주시는 국제행사는 물론 슬로시티 정신을 일반 시민에게 확산시키기 위해 '슬로시티 전주학교 오손도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주민 30~40명이 동네 모정 또는 회관에 둘러앉아 슬로시티에 대한 이해, 우리동네 마을이야기와 흥겨운 우리가락 체험, 그리고 전주 슬로푸드 만들기 등 다양한 도시락을 나누며 슬로체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역별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1년간 총 35회 1,0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오손도손 슬로학교를 운영하고 문화와 전통, 공동체를 계승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슬로시티 전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이어져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장을 역임한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6기부터 슬로운동에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주시에 많은 변화가 왔다. 전주시는 고층아파트 중심의 콘크리트 도시보다는 녹색생태도시, 자동차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도시로의 변화를 꾀했다.

대표적으로, 시는 자동차로 가득했던 전주역 앞 백제대로의 기존 직선도로를 S자형 곡선도로로 바꾸고,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등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첫인상을 심어주고 침체된 역사권 경제도 되살릴 수 있도록 첫마중길을 조성했다. 이에 도시경관 분야 최고의 국제상인 '2017 아시아 도시경관상(Asian Townscape Awards)'을 수상했다.

시는 또 객사 앞 종경로를 자동차가 아닌 사람 위주의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차도를 사람과 문화로 채우는 차 없는 사람의 거리로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기린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팔달로 인도 위의 불필요한 시설물을 통폐합

하는 도로비우기 사업을 전개하는 등 걷고 싶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중지구 일대에서는 아중호수를 중심으로 한 호반도시를 조성 중에 있다. 나아가, 시는 가장 슬픈 동물원으로 불렸던 전주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조성하는 등 진정한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전통문화와 슬로정신을 계승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나가 아는 전주시의 도전은 지속되고 있다.

시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전주를 녹음이 우거진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곳곳에 나무를 심는 '천만그루 가든시티' 전주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주시민들이 전주를 사랑하고 숨 쉬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나무심기를 손꼽는 만큼 시민 주도 정책으로 진행 중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7기 첫 결재사업인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도시에 그린인프라를 넓혀 또 한 번 슬로 시티의 수도 전주의 자력을 세계에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번 전주세계슬로포럼은 슬로시티 철학을 실천해온 분야별 세계 최고 전문가와 활동가들을 통해 슬로운동의 가치를 나누고 슬로시티 간 교류협력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주가 세계 슬로운동을 이끌어가는 슬로시티의 수도가 되기 위해 당당히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 차매정책 공청회 개최

전주시보건의료사업추진단은 24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차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차매관련 전문가와 관련부서 실무자, 차매유관기관 및 단체장 등 많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 및 차매정책 추진을 위한 토론을 했다.

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오는 11월로 예정된 2차 지역사회 차매협의체 회의에 반영, 2019년도 차매관리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소형열기구 화재안전대책 발표

무진장소방서(서장 김일선)는 최근 경기 고양 저유소 폭발사고가 난 가운데 풍등을 띄우기 위한 고체연료가 연소되지 않고 산이나 주택가에 떨어질 경우 화재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소형 열기구 화재안전대책을 발표했다. 24일 밝혔다.

풍등 등 열기구 사용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리면 ▲풍속 2m/s 이상 시 행사 중지 ▲풍등 외피는 방염성이 있는 것 사용 ▲행사 주회측 풍등 띄우기 전 안전교육 ▲화재위험구역 안전거리(10km) 이내 풍등 띄우기 자제 ▲연료연소시간 10분 이하로 제한 ▲행사장 주변 화재경계 소방력 및 안전관리 인력배치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역 수거 및 배치 등이 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시, 3D프린팅산업 미래인재 키운다

진로체험·지역특화산업 현장 맞춤형 교육 진행

전주시가 K-ICT 3D프린팅 전북센터에서 시행중인 '3D프린팅 교육·인식 확산사업'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인 3D프린팅산업의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나섰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3D프린팅 교육·인식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3D프린팅 진로체험 교육'과 '지역특화산업 현장 맞춤형 전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3D프린팅 진로체험 교육의 경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3D프린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프로그램으로 3D프린팅산업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참여한 학생들은 3D모델링을 위한 S/W학습 ▲3D펜을 활용한 자유창작 ▲출력 및 후가공 실습 등을 체험함으로써 진로체험과 적성 탐색을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3D프린팅 진로체험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중학교는 교육일정을 전 화로 확인한 후 '꿈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지역특화산업 현

전주시, 라돈 방사능물질 대응방안 논의

전주시가 라돈 등 생활 속 방사능 물질에 대한 안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단체, 소비자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댔다.

시는 24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와 함께 '생활 속 라돈방사능 물질의 안전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침대와 매트리스, 건강기능제품, 생리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 생활용품에서 라돈 제품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

라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참석자들은 ▲라돈은 어떤 물질인가 ▲우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실내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관리방법 등에 대해 자유토론을 펼쳤다.

또한, 시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향후에도 라돈초과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국내 한 침대업체의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전북지역 최초로 라돈측

장 맞춤형 전문교육'의 교육생 모집 내용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K-ICT 3D프린팅 전북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서문상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주시는 K-ICT 3D프린팅 전북센터를 중심으로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 국제 산업박람회 등을 진행하며 신성장산업 대표도시로 한 걸음 나아갔다"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성장의 역신을 열어갈 3D프린팅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의붓딸 상습 추행 40대 징역형

전주지법, 2년 6개월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0대 의붓딸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택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와 다른 가족들이 있었음에도 옆에서 피

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가 그동안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인 A씨에게 범행에서 번의해 자백하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징역으로 범행을 누워치고 있는 것이 좋지 조차 사실상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추행 정도가 심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뉴스

전북경찰청 제9지구대, 터널 내 차량화재대비 훈련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24일 통영대전고속도로 육십령터널(대전방향)에서 한국도로공사 무주지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터널 내 화재사고를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장대 터널 내에서 대형 버스 등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탑승객들에 대한 안전한 인명구조와 터널 내, 외부 차량에 대한 신속한 교통통제를 통해 소방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9지구대는 "관내에 118개의 터널이

있어 터널 내 화재발생에 대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지난 17일에는 익산고속도로로 곰터널(장수방향) 내에서 관광객 44명을 태운 관광버스 엔진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해 순찰차와 도로공사 차량이 긴급 출동하여 구조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신상남 9지구대장은 "행락철, 관광버스의 운행이 많아지고 있는데 운전자는 출발 전 엔진오일 점검 등 사전점검이 필요하고, 고속도로에서 차량에서 화재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탑승객들을 갖길 밖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시켜 2차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